

“마운드에 젊은피 수혈... 준비 잘 해 오겠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 3월 9일까지 日 오키나와서 스프링캠프
고졸 루키 3인·새 외국인 선수도 합류...내달 11일부터 연습경기

‘호랑이 군단’이 2019시즌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30일 챔피언스필드에 모였다. 이들은 장비와 짐을 챙긴 뒤 구단 버스를 통해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선수단은 31일 오전 비행기로 일본 오키나와로 떠난다.

윤석민, 김주찬, 이범호, 안치홍, 나지완 등 일부 선수들이 일찍 오키나와로 건너가 ‘자체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형우, 김선빈 등 야수 주전 선수들과 함께 김운동, 한승혁, 임기영 등 ‘젊은 마운드’의 중심 선수들이 이날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신입 외국인 선수’ 조 윌랜드도 새로운 동료들과 동행했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하게 된 윌랜드는 지난 28일 자신이 뭘 무대를 미리 둘러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그리고 이날 구단 버스를 타고 새 출발을 위한 길을 나섰다.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팀에서 뛰게 된 외야수 문

선재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오겠다”는 각오와 함께 새 팀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캠프를 떠나는 선수단 사이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은 ‘야기 호랑이 트리오’ 김기훈, 장지수, 홍원빈이었다.

이들은 앞선 관례를 깨고 전격적으로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고졸 루키 투수들이다. KIA는 그동안 오버페이스에 따른 부상 우려 때문에 고졸 신인 투수들은 스프링캠프 명단에 넣지 않았었다.

“설렌다”가 세 선수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홍원빈은 “캠프에 간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커피를 마시다가 뱀을 뱀했다”며 “설렌다. 선배님들을 빨리 보고 싶다. 의욕이 넘친다”고 들뜬 표정이었다.

캠프를 떠나기 위해 선배들의 짐을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도 신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다.

“불태웠다”며 웃은 장지수는 “캠프 참가 확정된 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얼떨떨했다. 자신 있다.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훈도 “설렌다. 캠프에 가게 돼서 영광이고



KIA 타이거즈 ‘고졸 신인 트리오’ 김기훈(왼쪽부터), 장지수, 홍원빈이 30일 캠프 출발에 앞서 챔피언스필드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빨리 선배들과 야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가장 같이 운동해보고 싶은 선배를 묻는 질문에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양현종이 세 신인 투수가 공통으로

꼽은 ‘보고 싶은 선배’였다.

홍원빈은 “양현종 선배님이 던지는 모습을 가장 보고 싶다”며 “제이콥 터너도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KIA 선수단은 내달 1일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3월 9일까지 스프링캠프를 이어간다. 11일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등과 13차례 연습경기도 갖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vs 박항서호 성사 될까

지난해 친선경기 3월26일 개최 합의... 베트남 일정 변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에서 나란히 탈락한 벤투호와 박항서호가 첫 A매치(국가대표 간 경기)에서 맞붙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대표팀이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대로 친선경기를 벌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투호와 박항서호의 맞대결은 작년 12월 정몽규 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회장장과 카이프 사메스 아세안축구연맹(AFF) 회장 권한대행 간 합의로 결정됐다.

양대 단체 회장이 2017년 EAFF 챔피언십(E-1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2018 AFF 스즈키컵 우승팀인 베트남이 단판 대결을 벌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대표팀의 일정이 개최 성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베트남의 경우 같은 날 캄보디아에서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태국과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치러야 한다.

베트남은 A대표팀 선수와 U-23 대표팀의 주축 선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두 팀의 사령탑을 맡은 박항서 감독으로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박항서 감독도 29일 귀국 인턴타임 때 “상황이 복잡하다. U-23 대표팀 선수 7-8명이 성인대표팀 자원이다”라며 “U-23 챔피언십 대회와 일정이 겹친다. 이 선수들을 한국전에 내보내기 힘들다. 한국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일정 문제가 있어 베트남 축구협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축구협회는 3월 26일 친선경기 일정을 ‘6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일정이 있어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태국과 U-23 챔피언십 예선 일정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벤투호-박항서호의 3월 26일 맞대결 여부는 EAFF와 AFF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카타르 우승” 사비 예언 적중 관심

내일 일본과 아시안컵 결승전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은 일본과 카타르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일본과 카타르는 내달 1일 UAE 아부다비에서 아시아 정상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두 팀은 과거 성적도, 선수 구성도, 경기 스타일도 사뭇 다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0위 일본은 과거 아시안컵에서 네 차례(1992, 2000, 2004, 2011년)나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반면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FIFA 랭킹 93위로, 이번 대회 전까지 두 차례 8강 진출이 아시안컵 최고 성적이었다.

다섯 번째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일본 대표팀의 무기는 유럽파 젊은 선수들이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은 오카자키 신지나 가가와 신지 등 베테랑 대신 젊은 선수를 위주로 팀을 꾸렸다. A매치 경력이 10경기 미만인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고 미나미노 다쿠미(잘츠부르크), 오사코 유야(베르더 브레멘) 등 유럽파가 12명 합류했다.

이에 반해 카타르 대표팀은 스페인에서 뛰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국 리그 소속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귀화 선수가 여러 명 있다. 간판 골잡이 알모예즈 알리(알두하일)는 수단 태생이고, 미드필더 알리 아피프는 탄자니아, 수비수 바사 알라위는 이라크에서 태어났다.

상당수의 선수가 스페인 출신의 펠릭스 산체스 바스 대표팀 감독과 함께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부터 호흡을 맞췄다.

/연합뉴스

광주 FC 시즌권 오늘부터 온라인 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2019시즌을 맞아 새 유니폼과 시즌권을 선보였다.

광주는 2019시즌 힘찬 도약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폼과 시즌권을 출시하고, 31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신규 유니폼은 팀의 주색인 옐로우와 화이트 등 지난 시즌과 같은 톤을 유지하고, 어깨 라인에 블랙과 레드를 더해 강인한 느낌을 살렸다.

유니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gjfc)에서 사진 주문할 수 있으며, 사진 주문한 팬에게는 20% 할인과 한정판 넥타이

를 제공한다.

2019 시즌권은 패키지 상품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성인권에는 니트 머플러와 텀블러를, 청소년권은 예코백, 포스트잇, 볼펜, 스키커를 선물로 담았다. 차감형 방식으로 시즌권 1매(25회)로 가족, 친구, 연인 등과 동반 입장할 수 있다. 가격은 성인 7만원, 청소년 5만원이다.

시즌권은 31일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1차 배송은 2월 21일, 2차 배송은 2월 28일에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은 30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헤타페와 코파 델레이 8강 2차전에 교체 출전해 환상적인 크로스와 스루패스로 2골에 기여하며 맹활약 했다.

‘열여덟’ 이강인, 가치를 입증하다

스페인 국왕컵 8강전 활약 3-1 승리 견인...발렌시아, 1군 재계약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8)이 소속팀인 발렌시아의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4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탈락 가능성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환상적인 크로스와 스루패스로 2골을 만들며 팀을 구했다.

이강인은 30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헤타페와 코파 델레이 8강 2차전에 교체 출전했다.

이강인은 일종의 승부수 카드였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했다. 라인을 당겨 적극적으로 압박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후반

43분 왼쪽 크로스를 눈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했는데, 공이 골대 위로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이강인은 후반 추가시간 추격골을 만드는 크로스를 날렸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 뒤에서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왼발로 찼는데, 공은 곡선을 그리며 골문 왼쪽 앞에 있던 팀 동료 산티 미나의 헤딩 패스로 연결됐다. 그리고 이 공을 로드리고 모레노가 골문으로 밀어 넣었다.

이강인의 활약은 계속됐다. 1분 뒤 나온 결승 골도 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스루패스를

시도했다. 공은 정확하게 전방에 있던 케빈 가메이로에게 연결됐다.

가메이로는 곧바로 망볼 크로스를 날렸고, 문전에 있던 모레노가 골을 터뜨렸다.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두 골로 발렌시아는 3-1로 승부를 마무리하며 4강에 올랐다.

이강인은 이날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의미 있는 경기를 펼쳤다.

한편 스페인 매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이날 발렌시아 구단이 조만간 이강인과 1군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현재 배번 34번 대신 16번을 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발렌시아는 지난해 7월에 이미 이강인과 재계약했다. 당시 발렌시아 구단은 계약기간 2022년 6월까지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8000만 유로(약 1023억원)에 사인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